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종 학

2011년 8월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중 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김중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국문초록>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김 종 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의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자신의 가치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첫째,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에 하위 가설은 진로성숙도는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둘째로,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에 하위 가설에서는 첫째, 진로의사결정유형은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의사결정능력은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J대학교 재학생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1,2학년을 대상으로 ‘꿈을 찾아 떠나는 내 마음의 지도(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라는 공고를 내고, 이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24명으로 하였다. 그리고 12명은 실험집단으로 하고 12명은 통제집단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Holland 적성탐색검사와 2007년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의 활동 중에서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의 이해 및 의사결정의 일부분을 도입하여 지도교수와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수정 및 보완한 후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구성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K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내용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전 과정이 끝난 후 질문 내용에 따라 응답한 평가서와 프로그램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작성한 소감문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전체 및 하위영역의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 타협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진로의사결정유형은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전체 및 하위영역에서 하위요인인 합리성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진로의사결정능력은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진로 결정성, 진로 관여성, 진로 독립성, 진로 타협성, 진로 성향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진로결정에 필요한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자신의 직업 적성과 방향,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을 학년별로 차별화하여 대상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학에서는 진로 및 직업지도 차원에서 본 프로그램과 같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문제 및 가설 | 4 |
| II. 이론적 배경 | 5 |
| 1. 진로성숙도 | 5 |
| 2. 진로의사결정 | 7 |
| 3. Holland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 | 9 |
| 4.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 12 |
| III. 연구방법 | 17 |
| 1. 연구대상 | 17 |
| 2. 연구설계 | 17 |
| 3.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 18 |
| 4. 연구도구 | 20 |
| 5. 자료처리 | 22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3 |
| 1. 동질성 검증 | 23 |
| 2. 가설 검증의 결과 | 25 |
| 3. 질적 분석 | 28 |
| V. 논의 및 결론 | 32 |
| 1. 논의 및 결론 | 32 |
| 참고문헌 | 35 |
| Abstract | 38 |
| 부 록 | 41 |

표 목 차

| | |
|---|----|
| <표Ⅱ-1> Holland의 6가지 성격유형과 환경유형 | 16 |
| <표Ⅲ-1>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19 |
| <표Ⅲ-2> 진로성숙도 검사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 20 |
| <표Ⅲ-3> 진로의사결정유형 검사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 21 |
| <표Ⅳ-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 24 |
| <표Ⅳ-2> 진로성숙도 실험-통제집단 점수차의 t-검증 | 25 |
| <표Ⅳ-3> 진로의사결정유형 실험-통제집단 점수차의 t-검증 | 26 |
| <표Ⅳ-4> 진로의사결정능력 실험-통제집단 점수차의 t-검증 | 27 |

그림 목 차

| | |
|-------------------------------|----|
| [그림Ⅱ-1] Holland의 6각형 모형 | 15 |
| [그림Ⅲ-1] 실험설계 | 17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이 고도로 분화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고 있다. 직업의 세계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직업들을 모방하거나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져서 소멸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역동 속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직업의 이해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진로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전공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취업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길러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문제의식조차 없는 학생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박완성, 2005).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후기 청소년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신의 진로는 무엇인지,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명확한 인생목표를 가지고 확신에 찬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상담실을 내방하여 진로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심리검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각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강연우, 김이레, 장윤정, 2006; 류진혜, 2007)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학업과 진로임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07)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활에서 어려운 점('06년)은 진로결정 문제(46%), 학업(22%), 교우관계(9%)로 응답하였고 취

업 준비를 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3학년 2학기(40%), 4학년 1학기(18%), 3학년 1학기(17%)로 응답하였다. 이에 취업준비에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지원 부족(16%), 어떤 직업 선택할지 모름(15%), 전공과 희망직업 맞지 않음(15%)으로 응답하였다. 분석한 결과 재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진로 및 취업’으로 나타났다. 즉 최연실 외(2005) 연구 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대학 재학생들은 진로선택 및 취업에 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학생들이 직업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점도 ‘적성’ 또는 ‘직업의 안전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타 대학의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데 대학생회에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바로 진로 및 취업문제이고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김수연과 이은경, 1996; 김성희, 1998; 김계현, 김인규와 민경화 2000; 김은산, 김경창과 이시은, 2000; 김지영, 2001).

대학생들은 처음 대학의 학과를 선택 하거나 대학 진학 후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이 아닌 본인의 성적이나 경제적 환경, 그 당시 상황에 맞춘 현실과의 타협 등으로 진로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물론 대부분에 청소년들이 안정적이며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대기업과 같은 곳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거나 공무원이 되기만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흥미와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선택은 직업에 대한 적응이 힘들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직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대학생회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자신이 무엇을 좋아 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진로탐색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면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탐색 단계는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현재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세계의 파악으로 잠정적 직업선택을 점진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는 생애 발달과정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olland 적성탐색검사의 RIASEC 유형은 전공학과의 선택이나 직업 선택 등과 같은 사람의 성격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적인 환경을 선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RIASEC 유형에는 실재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기업형(E), 관습형(C)으로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유형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을 나타낸다.

개인이 현재 지니고 있는 흥미, 성격, 성향 등을 포함하는 생활방식과 직업적 성격이 일치 될 때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볼 수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김지영, 2001), 홀랜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김민순, 2004), 대학생을 위한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분석(허정임, 2001),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김남구, 2007) 등에서 진로성숙도 또는 진로의사결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연구를 깊게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이거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에서도 능력이나 유형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대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준과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대상에 따른 수준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과 실질적으로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실천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흥미, 성격, 가치, 능력, 적성 등을 반영하여 각 개인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여러 선행 연구들(구남희, 1997; 강현량, 2000; 허정임, 2001; 김지향, 2001; 이경애, 2003)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적성탐색 검사 도구를 활용한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가설 1. 진로성숙도는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가설 2-1. 진로 의사결정유형은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진로 의사결정능력은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이론적 배경에서는 진로 성숙도, 진로의사결정,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론과 Holland의 6가지 유형의 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은 Super(1951)와 Crites(1961)에 의해 진로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발달되었다. Super는 생애단계(life-stage)의 개념이 진로발달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고 진로발달의 개념은 진로성숙의 개념을 산출했다고 보았다(김민순, 2004, 재인용). 그는 진로성숙을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Vocational tasks)에 대한 준비도로 주장하였으며, 개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진로행동이 그가 속한 연령대로 이루어야 할 기대 진로행동과 얼마나 일치되는지에 대해 평가된다고 보고있다. Crites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하여, 진로성숙을 지속적인 생애단계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발달적 과업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Super의 주요개념을 살펴보면, Super는 진로유형, 진로성숙, 자아 개념이라는 네 가지 개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진로'를 개인이 일련의 발달과업에 직면하고 자신이 목표달성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절하는 삶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Super, 1990). 그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심리적 및 생리적 속성에 의해,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달해 나간다고 보았다.

김충기(1983)는 진로성숙이란 개인이 습득한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을 통해 직업 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를 진로성숙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동환(2001)의 진로 성숙은 특정 개인이 자아와 일의 세계를 기초로 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상대적 준비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입장은 진로성숙이란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란 개념으로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이현림, 김봉환, 송재홍, 천성문, 2000).

따라서 진로성숙이란 자신과 직업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가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Super의 진로발달적 관점에서의 RIASEC유형을 살펴보면, Super는 생애단계의 개념이 진로발달의 개념에 영향을 주었고 진로발달의 개념은 진로성숙의 개념을 산출했다고 보면서 진로성숙을 성장기로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의 한 도달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진로선택은 생의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고 인생의 여러 발달과제가 성숙의 결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직업발달이론이라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즉, 개인차, 직업적 능력의 유형, 부모와의 동일시 및 모델의 역할, 적응의 계속성, 생애단계, 진로유형, 발달의 지도 가능성, 발달이 개인과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 진로유형의 역동성, 직업적 만족 및 직업이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점 등이다.

그리고 Super(1951)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직업발달단계(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은퇴기)가 있는데 각 단계는 독특한 행동 특징 및 각 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발달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진로발달단계에서 탐색기와 확립기를 강조했으며 이 두 시기(14-25)에 이루어야할 발달과업으로 직업선택의 명료화(잠정적 선택), 직업선택의 구체화(구체적 직업을 선택하는 태도), 직업선택의 이행화(직업선택을 현실로 전화시키는 태도 즉 행동화), 잠정적으로 선택한

직업에서의 안정감, 개인의 위치에 대한 고려, 직업으로의 진출 등을 들고 있다 (김민순, 2004, 재인용).

사람이 정말로 체계적인 순서를 거친다면 발달 선상에서 나이 또래와 거기서 당연히 기대되어지는 것 사이에서 한 개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비교하고 발달 순서의 진보와 정도가 측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대되는 것과 한 개인의 현 위치와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에 따라 진로 성숙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생애발달과정에서의 역할 즉 학업, 직업, 여가생활, 가정생활, 부부,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시민활동, 은퇴생활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양식으로써의 RIASEC 유형은 의미가 크다. 즉,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유형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진로상담 프로그램에서는 Super의 이론에 발달적 견해에 따라 진로 발달 단계 중 강조점을 두고 있는 탐색기의 과정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RIASEC유형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진로의사결정

진로의사결정은 자신의 일생동안에 있어서 진로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와 관련된 이론의 구성요소로서 특히 의사결정이론의 개념과 과정을 포괄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한 진로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을 교육적 선택, 직장 선택, 직업의 변화 등에서 겪는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느 한 시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어떤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진로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이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정한 준거에 의거 상호 비교함으로써

써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진로 의사결정 이론은 개인의 진로에서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의사결정과정이다(한국진로교육학회, 1999).

진로 의사결정의 개념에 대해 관련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보면 Krumboltz 등(1982)은 진로에 관련된 사회적 강화, 모델화, 직접적 강화 그리고 그 단어 및 이미지의 결과로서 선호적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 Jepsen 등(1982)은 진로결정을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 특수한 영역으로 보고 진로에 대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진로에 대한 조건들을 관련지을 때 사고(thought)행위로 정의하였다. Miller(1968)는 직업결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직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정채기, 1991, 재인용).

이와 같이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진로 의사결정이란 학생이 중요한 진학과 취업을 하기 전에 자신이 계획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 이론으로는 Tiedeman과 O'Hara(1963)의 진로결정모형이 있다. Tiedeman은 진로발달의 본질은 결정유형(the pattern of decisions)이라고 보면서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Gelatt의 진로결정모형에서는 상담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결정이론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Harren의 진로 의사결정모형에서는 의사결정유형을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에서 합리적 유형이 적극적인 진로계획과 정보탐색,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고대석, 2002). 구체적인 특징은 첫째,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둘째, 직관적 유형은 앞으로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감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정보탐색이나 대안들에 대한 평가과 정도 갖지 않은채 주로 상상과 정서적 자각을 기초로 결정한다. 셋째, 의존적 유형은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로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3. Holland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

Holland(1992)의 인성이론은 유형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한 개인의 행동 양식은 인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자신의 인성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의 성격유형론은 환경의 특성 간의 좋은 적합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그 직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지만 개인의 성격과 직무환경 간의 불일치는 곧 직무 불만족, 불안정한 진로 통로, 낮은 직무 수행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이후 직업 흥미, 직업 선택, 직업 만족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 후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직업적 기회와 진로 동기를 갖게 되는지에 관한 직업적 성격유형론(Holland, 1985)을 완성했다.

1) 기본 가정

Holland(1992)의 직업적 성격유형론의 기본 가정은 직업적 흥미를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불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곧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 유형은 그 사람의 직업선택 및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서로 유사한 성격 및 발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직업 선택은 성격의 표현이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성격유형과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비슷한 방식의 생활 유형을 갖게 된다고 본다. 세상의 직업적 성격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람의 성격과 같이 확실한 속성과 특성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Holland 이론의 기본 가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olland, 1992).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재적(Realistic), 탐구적(Investigative), 예술적(Artistic), 사회적(Social), 기업적(Enterprising), 관습적(Conventional) 중 한 가지 유형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머리글자를 따서 RIASEC으로 여섯 가지 유형이라 한다. 각 유형은 부모의 사회적 계층, 문화, 유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문화적, 개인적 영향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사람마다 자신이 더 선호하는 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창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직업 환경이나 생활환경도 여섯 가지의 환경이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끼리 공유하기가 쉬우며 그들이 속하는 환경도 그 사람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각 환경에는 그 성격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물게 되며 직업에 대한 만족을 자신의 성격 패턴과 일치하는 환경에서 찾는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으며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유형과 유사한 환경을 찾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의 행동양식은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의 결과로 이를 직업적 행동에 연결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직업 생활을 할지가 예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직업 환경에 대한 지식은 진로 선택, 직업 변경, 직업 성취 등에 관해서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본다.

2) 기본원리

Holland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의 기본 원리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직업 선택은 성격의 표현이다.

둘째, 흥미 검사는 곧 성격검사가 된다.

셋째,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및 견해는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넷째,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성장해 왔을 것이며 성격도 유사할 것이다.

다섯째,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들만의 특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여섯째, 직무 및 직업 만족, 직업적 안정, 직업적 성취는 개인의 성격과 이들이 일하는 환경간의 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3) Holland의 6가지 유형

Holland의 6가지 유형과 유형들간의 관계는 <그림 II-1>과 같이 6각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개념 및 개인의 특성과 환경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도는 6각형 모형에서 성격유형들간 혹은 환경유형들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알 수 있다. 일관도란, 어떤 한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육각형에서 인접해 있는 유형들인 R과 I, E와 S는 일관도가 가장 높으며 서로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R과 S, I와 E, A와 C는 일관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술적(A)유형과 사회적 유형(S)은 예술적 유형(A)과 기업적 유형(E), 예술적 유형(A)과 관습적 유형(C)보다 더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유형들이 6각형 모형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해 있을수록 일관도가 높고 유사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발달과 관련시켜 볼 때 일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진로나 목표에 대해 오랫동안 추구해온 사람일 경향이 높다.

둘째, 분화도는 개인의 성격유형과 환경유형은 한 유형에만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다른 유형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6가지 유형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 유형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격유형과 환경을 통해서만 한 개인의 성격을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성격이나 환경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RIASEC 각 척도 점수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 사람의 진로코드를 분명하게 말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진로 가능성의 예언도 어려울 수 있다. 흔히 가장 높은 두 자리 진로 코드간의 차가 보통 10이상이 되어야 분화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피검자의 성격이나 환경, 진로 등에 대해서 특징 있게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다. 적성탐색검사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뺀 값을 의미한다.

셋째, 일치도는 한 개인의 성격유형이 작업환경과 일치할 때를 말하는데 만일

성격영역에서 RC라는 유형코드가 나왔고 활동영역에서도 RC로 나타났다면 일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교육활동 등에 대한 관심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온 경우에는 일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회적 성격유형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적응 또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직무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넷째, 정체감이란 자신의 목표와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해서 명확하고 안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예컨대, 환경에서의 정체감은 직업의 안정감, 목표, 업무, 보상 등에서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정체감이 잘 구성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일관도가 높으면서도 분화도가 높게 나타난다. 만일, 모든 척도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일관도와 일치도가 낮으면 정체감이 혼란되어 있거나 자신에 대해서 안정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을 경향이 높다.

다섯째, Holland의 6각형 모형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개인에 관련된 자기-지식이나 정보 등의 자기이해는 직업에 관한 정보만큼 중요성을 띤다. Holland는 중요한 진로판단의 대부분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직업정보에서 나오며 진로선택의 안정성도 성격경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성격발달을 그의 진로유형론에서 주요 관심사로 다루었다.

4.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경애(2003) 논문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구성되었다. 이후 연구들도 대부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것도 포괄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다. 물론 최근 김민순(200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대상이 참가신청을 하는 모든 학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아닌 진로의사결정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대학생은 취업 대란이라는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직업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학생들을 보면 대학 저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진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학년이 되어서야 진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진로정보부족과 낮은 진로성숙도는 본인에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러한 잘못된 진로의사결정은 취업 시 스트레스와 좌절, 그리고 빠른 이직 등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과 직업세계를 자기 통합 시켜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해 즉,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 한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잘 반영한 것이 Holland 적성탐색검사로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탐색, 집단원의 일이나 활동 및 직업에 대한 흥미, 능력의 정도로서의 유능감, 성격적 특성 등에서 나타나는 직업적 성격유형(RIASEC)을 찾아내어 자신의 생활방식(life style)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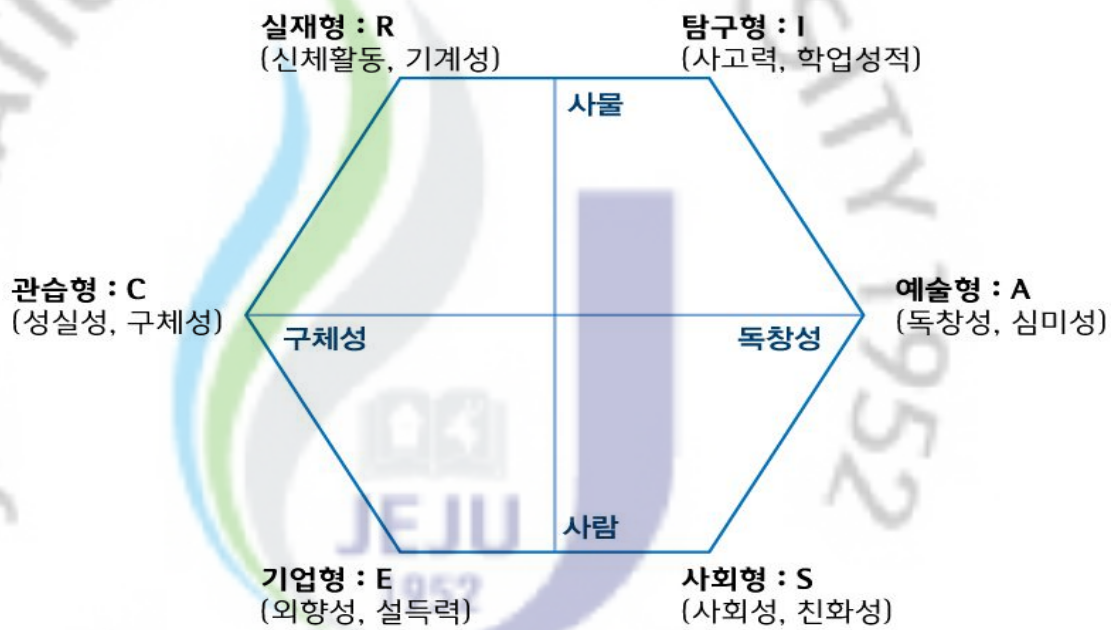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행연구(윤효권, 2000; 김지향, 2001; 허정임, 2001)에서도 인정받은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이해와 직업의 이해, 진로의사결정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최근에 나온 2007년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 도입하여 지도교수와 전문가의 지도 아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 한 후 내용을 구성 하였다.

2) 구조 및 내용

본 연구자가 구안한 프로그램의 기본구조는 크게 자기 이해, 직업의 이해, 진로선택 및 계획의 3단계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6회기로 나누어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자기 이해 : Holland 적성탐색검사 및 해석상담, Holland의 RIASEC 유형의 이해
- ② 직업의 이해 :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 ③ 진로의 선택 및 계획 : 최종 직업선택 및 장기적인 생활 실천 계획 짜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진행되는 순서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지도자는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할 때마다 목표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명료화 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응하고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집단원 각자와 나누어 보고 프로그램을 마친다. 모임의 시간에 있어 결석하거나 지각하지 않도록 하며 결석할 경우에는 미리 지도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전체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 R: 실재형(Realistic)
- I: 탐구형(Investigative)
- A: 예술형(Artistic)
- S: 사회형(Social)
- E: 기업형(Enterprising)
- C: 관습형(Conventional)

<그림 II-1> Holland의 6각형 모형

<표 II -1> Holland의 6가지 성격유형과 환경유형

| | 실재형(R형) | 탐구형(I) | 예술형(A형) | 사회형(S형) | 기업형(E형) | 관습형(C) |
|--------|--|--|---|--|--|---|
| 성격 특성 | 남성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며, 검소하고, 지구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소박하고, 말이 적으며, 고집이 있고, 단순하다. |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며, 정확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으며, 비판적,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타며, 신중하다. |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강하며, 자유분방하며, 개방적이다. 감정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협동적이지 않다. | 사람들을 좋아하며,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남을 잘 도와주고, 봉사적이며, 감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 지배적이고, 통솔력, 지도력이 있으며, 말을 잘하고, 설득적이며, 경쟁적, 야심적이며, 외향적이고, 낙관적이고, 열성적이다. | 정확하고, 빈틈없고, 조심성이 있으며, 세밀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완고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
| 적성 유능감 | 1. 기계적, 운동적인 능력은 있으나 대인관계 능력은 부족. 2. 수공, 농업, 전기, 기술적 능력은 높으나, 교육적 능력은 부족. | 1. 학구적·지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학적·과학적 능력은 높으나 지도력이나 설득력은 부족. 2. 연구능력이 높음. | 1. 미술적·음악적 능력은 있으나 사무적 기술은 부족. 2. 상징적·자유적 능력은 있으나 체계적·순환적 능력은 부족. | 1. 사회적·교육적 지도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있으나, 기계적·과학적인 능력은 부족. 2. 기계적·체계적 능력이 부족. | 1. 적극적이고, 사회적이고, 지도력과 언어의 능력은 있으나 과학적인 능력은 부족. 2. 대인간, 설득적인 능력은 있으나 체계적 능력은 부족. | 1. 사무적이며, 계산적인 능력은 있지만 예술적, 상상적 능력은 부족. 2. 체계적, 정확성은 있으나 탐구적·독창적 능력은 부족. |
| 가치 | 특기, 기술, 기능, 전문성, 유능성, 생산성 | 탐구, 지식, 학문, 지혜, 합리성 | 예술, 창의성, 재능, 변화, 자유, 개성 | 사랑, 평등, 헌신, 공익, 용서, 봉사 | 권력, 야망, 명예, 모험, 자유, 보상 | 능률, 체계, 안전, 안정 |
| 생의 목표 | 기계나 장치의 발견 및 기술사, 전문인, 뛰어난 운동선수 | 사물이나 현상의 발견 및 과학에 대한 이론적 기여 | 예술계의 유명인, 독창적인 작품 활동 | 타인들을 도우고 희생, 존경받는 스승, 치료전문가 |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금융과 상업분야의 전문가 | 금융과 회계의 전문가, 사무행정 전문가 |
| 대표 직업 | 기술자, 자동기계 및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농부, 엔지니어, 전기, 기계 기사, 운동선수 | 과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지질학자, 의료기술자, 의사 | 예술가, 작곡가, 음악가, 무대감독, 작가, 미술가, 무용가, 디자이너 | 사회복지사, 교육자, 간호사, 유치원교사, 종교지도자, 상담가, 임상치료사, 청소년전문가 | 영업사원, 상품구매인, 보험회사원, 판매원, 관리자, 연출가, 광고대행업자, 언론인, 노동조합지도자 | 공인회계사, 경제 분석가, 은행원, 세무사, 경리사원, 감사원, 안전관리사, 사서, 법무사 |
| 전공 계열 | 공학계열, 농학, 해양수산, 이학계열 | 의학, 약학, 이학, 의학 자연계 | 예술, 음악 미술, 공예, 연극영화, 무용계, 인문계 | 사회계열, 가정, 간호, 체육, 복지, 사범대, 심리 | 상경, 법정, 사회, 행정, 정치 | 법정, 상경, 행정, 회계, 문헌정보 |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J대학교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꿈을 찾아 떠나는 내 마음의 지도(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라는 공고를 내고, 이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24명으로 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 12명, 통제집단에 12명씩 구성하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연구설계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하였다.

| | | | |
|------|----------------|---|----------------|
| 실험집단 | O ₁ | X | O ₃ |
| 통제집단 | O ₂ | - | O ₄ |

X : 실험처치(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O₁, O₂ : 사전검사(진로성숙도 검사, 진로의사결정유형검사, 진로의사결정능력 검사)

O₃, O₄ : 사후검사(진로성숙도 검사, 진로의사결정유형검사, 진로의사결정능력 검사)

<그림Ⅲ-1> 실험설계

3.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집단상담의 목표는 대학생들이 자기의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스스로 여러 대안을 세워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진로성숙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로성숙이 증진된다는 것은 곧, 자기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즉흥적으로가 아닌 본인에 적성과 같은 많은 부분들을 직업적 환경과 연결시켜서 스스로 세운 여러 대안들 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능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진로성숙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격적 차이에 대한 이해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한 가운데 자기 이해,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의사결정 증진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은 되었지만 개인의 성격과 직업적성격등을 연결시키지 못 하고 있고 활동의 적용 방식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담자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치, 삶의 목표에 차이가 있으며 각자의 의사결정 방법이나 계획, 직업 또한 달라지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때 직업적 성격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하여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탐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즉, 집단원의 일이나 활동 및 직업에 대한 흥미, 능력의 정도로서의 유능감, 성격적 특성 등에서 나타나는 직업적 성격유형(RIASEC)을 찾아내어 자신의 생활방식(life style)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선행연구에서도 인정받은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2007년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의 활동 중에서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의 이해 및 진로의사결정의 일부분을 도입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정 및 보완한 후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표Ⅲ-1]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단계 | 회기 | 영역 | 주요 내용 |
|-----|-----|---------|--|
| 1단계 | 1회기 | 초기만남 |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소개 및 구조화, 진로별칭 짓기와 자기소개, 참가동기와 개인목표 발표, Holland적성탐색검사(사전검사) 및 해석상담, Holland의 RIASEC 유형의 이해 |
| | 2회기 | 자기탐험 I | <input type="checkbox"/>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은? Holland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를 활용한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진로코드에 맞는 직업의 공통점 찾기, Holland RIASEC 유형별 집단 활동 |
| | 3회기 | 자기탐험 II | <input type="checkbox"/> 내가 원하는 삶은? want-have list 작성, 내 꿈의 변천사 |
| 2단계 | 4회기 | 직업 탐험 | <input type="checkbox"/> 직업 정보 파악은? 직업이란 무엇인가? 토론, 직업의 개념 및 특성, 직업인의 삶 이해하기, 취업성공담을 통한 성공요인 파악(타산지식), 직업 종류 탐색하고 찾아보기 |
| 3단계 | 5회기 | 의사결정 | <input type="checkbox"/> 내가 표현하는 의사결정 방법은? 우주 타임캡슐, 의사결정 유형 그 실체와 진실,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실습 |
| | 6회기 | 여미는장 | 나의 생활 실천 계획 짜기, 피드백 공유, 과정 정리 및 소감 나누기 |

4. 연구도구

1) 진로성숙도 검사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 되는 도구인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Crites, 1978)를 이현림(199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의식성숙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진로 결정성, 진로 관여성, 진로 독립성, 진로 성향, 진로 타협성 등의 5가지 하위영역에서 총 75문항 중 47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요령은 ‘그렇다’와 ‘아니다’에 ‘O’, ‘X’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O’에 응답한 것은 2점, ‘X’에 응답한 것은 1점을 부여하였다.

[표Ⅲ-2] 진로성숙도 검사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 하위척도 | 해당 문항 번호 | 문항수 | Cronbach's α |
|--------|---|-----|---------------------|
| 진로 결정성 | 1*, 3*, 16*, 18*, 31*, 33*, 46, 48*, 61*, 63* | 10 | .686 |
| 진로 관여성 | 4*, 6*, 19*, 21*, 34*, 36*, 49*, 51*, 64*, 66* | 10 | .615 |
| 진로 독립성 | 7*, 9, 22*, 24, 37*, 39, 52*, 54*, 67*, 69* | 10 | .603 |
| 진로 타협성 | 13, 15, 28*, 30*, 43, 58*, 73* | 7 | .605 |
| 진로 성향 | 10, 12*, 25*, 27*, 40*, 42*, 55*, 57*, 70*, 72* | 10 | .733 |
| 전체 | | 47 | .789 |

* 역산처리 문항

2) 진로의사결정유형 검사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ren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이현림(200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진로의사결정유형 검사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하위 척도 각각에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 요령은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같으면 'O' 다르면 'X'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O'에 응답한 것은 2점, 'X'에 응답한 것은 1점을 부여하여 세 유형의 점수를 다 갖도록 되어 있다. 해당 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의 경향이 높은 것이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 번호는 다음과 같다.

[표Ⅲ-3] 진로의사결정유형 검사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 하위척도 | 해당 문항 번호 | 문항수 | Cronbach's α |
|--------|-------------------------------------|-----|---------------------|
| 합리적 유형 | 1, 5, 7, 13, 17, 18, 20, 25, 28, 30 | 10 | .872 |
| 직관적 유형 | 3, 4, 6, 10, 11, 14, 19, 22, 24, 26 | 10 | .660 |
| 의존적 유형 | 2, 8, 9, 12, 15, 16, 21, 23, 27, 29 | 10 | .860 |
| 전체 | | 30 | .616 |

3) 진로의사결정능력 검사

진로의사결정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이도화와 김남구가(2007) 개발한 척도를 검사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진로의사결정능력 검사는 진로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5점 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소감문 작성

프로그램 효과성을 파악하는 통계분석자료에 덧붙여 내용 분석을 위해서 프로그램 종결 시 질문을 사용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감문을 매 회기가 끝날 때 마다 작성하게 하였다.

5. 자료처리

1)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 측정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 각각의 하위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값에 대한 증가분을 이용하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2)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K for Windows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소감문 분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내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전 과정이 끝난 후 질문 내용에 따라 응답한 평가서와 프로그램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작성한 소감문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동질성 검증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하는 선행조건은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행해지기 전에 배정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의사결정능력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동질성 파악을 위해서 t-검증을 하였다.

<표IV-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N=12)

| 검사종류 | 집단 | 평균 | 표준편차 | df | t | p | | |
|----------|----------|-----|------|------|-----|--------|-------|------|
| 진로성숙도 | 결정성 | 실험 | 1.48 | .27 | 22 | -.864 | .400 | |
| | | 통제 | 1.57 | .25 | | | | |
| | 관여성 | 실험 | 1.76 | .22 | 22 | -1.892 | .077 | |
| | | 통제 | 1.89 | .12 | | | | |
| | 독립성 | 실험 | 1.78 | .15 | 22 | .856 | .407 | |
| | | 통제 | 1.73 | .18 | | | | |
| | 타협성 | 실험 | 1.63 | .28 | 22 | -1.229 | .230 | |
| | | 통제 | 1.75 | .19 | | | | |
| | 성향성 | 실험 | 1.64 | .19 | 22 | .093 | .931 | |
| | | 통제 | 1.63 | .28 | | | | |
| | 전체 | 실험 | 1.22 | .04 | 22 | -1.913 | .071 | |
| | | 통제 | 1.27 | .07 | | | | |
| | 진로의사결정유형 | 합리성 | 실험 | 1.67 | .29 | 22 | -.212 | .842 |
| | | | 통제 | 1.69 | .29 | | | |
| 직관성 | | 실험 | 1.48 | .25 | 22 | 1.234 | .234 | |
| | | 통제 | 1.37 | .18 | | | | |
| 의존성 | | 실험 | 1.33 | .26 | 22 | -1.716 | .105 | |
| | | 통제 | 1.54 | .33 | | | | |
| 전체 | | 실험 | 1.49 | .08 | 22 | -1.014 | .330 | |
| | | 통제 | 1.53 | .12 | | | | |
| 진로의사결정능력 | | 능력 | 실험 | 3.22 | .61 | 22 | -.122 | .900 |
| | | | 통제 | 3.25 | .70 | | | |
| | 전체 | 실험 | 3.33 | .61 | 22 | -.127 | .902 | |
| | | 통제 | 3.25 | .70 | | | | |

그 결과 <표IV-1>에 나타난 대로 진로성숙도 점수, 진로의사결정유형 점수, 진로의사결정능력 점수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각 경우 모두 $p>.05$ 로 즉,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의사결정능력 수준이 유사하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사전집단 사전검사의 결과는 동질하다고 볼 수 있다.

2. 가설 검증의 결과

1)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 보다 진로성숙도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진로성숙도 전체 및 하위 변인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차에 대한 t-검증을 하였다<표IV-2>.

<표IV-2> 진로성숙도 실험-통제집단 점수차의 t-검증(N=12)

| 검사종류 | 집단 | 평균 | 표준편차 | df | t | p |
|------|----|------|------|----|-------|------|
| 결정성 | 실험 | .19 | .25 | 22 | 2.582 | .020 |
| | 통제 | .00 | .07 | | | |
| 관여성 | 실험 | .18 | .15 | 22 | 3.584 | .001 |
| | 통제 | -.02 | .11 | | | |
| 독립성 | 실험 | .16 | .18 | 22 | 2.801 | .010 |
| | 통제 | .01 | .05 | | | |
| 타협성 | 실험 | .06 | .24 | 22 | 3.634 | .000 |
| | 통제 | -.01 | .10 | | | |
| 성향성 | 실험 | .17 | .17 | 22 | 2.552 | .020 |
| | 통제 | .03 | .10 | | | |
| 전체 | 실험 | .12 | .06 | 22 | 5.391 | .000 |
| | 통제 | .01 | .04 | | | |

[표IV-2]에서 보면 진로성숙도 전체척도($t=5.39, p<.05$)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진로성숙도의 하위 내용 영역별로 살펴보면, 결정성($t=2.58, p<.05$), 관여성($t=3.58, p<.05$), 독립성($t=2.80, p<.05$), 타협성($t=3.63, p<.05$), 성향성($t=2.55, p<.05$)점수에서 모두 유의 있는 증가를 나타냈다.

통제집단의 경우는 사후 검사에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에 참여한 집단이 진로성숙도가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한 집단활동이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었고,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의 want-have list 작성과 내 꿈의 변천사 역시 진로성숙도가 낮은 대학생들에게 적용시켰을 때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 보다 진로의사결정유형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진로의사결정유형 전체 및 하위 변인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차에 대한 t-검증을 하였다<표IV-3>.

<표IV-3> 진로의사결정유형 실험-통제집단 점수차의 t-검증(N=12)

| 검사종류 | 집단 | 평균 | 표준편차 | df | t | p | |
|--------------------------------------|-----|------|------|-----|-------|--------|------|
| 진 로 의 사 결 정 유 형 | 합리성 | 실험 | .11 | .14 | 22 | 2.383 | .037 |
| | | 통제 | -.01 | .10 | | | |
| | 직관성 | 실험 | .04 | .19 | 22 | .471 | .640 |
| | | 통제 | .01 | .16 | | | |
| | 의존성 | 실험 | -.16 | .24 | 22 | -1.961 | .060 |
| | | 통제 | .19 | .24 | | | |
| 전체 | 실험 | -.00 | .07 | 22 | -.920 | .370 | |
| | 통제 | .12 | .04 | | | | |

[표IV-3]에서 보면 진로의사결정유형 전체척도($t=-.92$ $p>.05$)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진로의사결정유형 하위 내용 영역별로 살펴보면, 합리성($t=2.38$, $p<.05$), 직관성($t=.47$, $p>.05$), 의존성($t=-1.96$ $p>.05$) 점수에서 합리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직관성과 의존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유형 전체 척도와 그 하위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하위 요인 합리성만이 긍정되었다.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의존성과 직관성은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본인에 진로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방해가 된다. 그렇지만 합리적 유형은 적극적인 진로계획과 진로탐색을 돕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 보다 진로의사결정능력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진로의사결정능력에 전체 및 하위 변인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차에 대한 t-검증을 하였다<표IV-2>.

<표IV-4> 진로의사결정능력 실험-통제집단 점수차의 t-검증(N=12)

| 검사종류 | 집단 | 평균 | 표준편차 | df | t | p |
|----------------------|----|------|------|----|-------|------|
| 진로 의사 결정 능력 | 실험 | .78 | .60 | 22 | 4.533 | .000 |
| | 통제 | -.07 | .21 | | | |

[표IV-4]에서 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진로의사결정능력($t=4.53$, $p<.05$)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능력이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3. 질적분석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후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평가서 1>과 <프로그램 평가서 2>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평가서 1>의 분석

프로그램 평가서 첫 번째 문항 ‘이 프로그램에서 상담자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에서 응답자의 75%가 매우 좋음, 25%가 약간 좋음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즉, 전체 프로그램에서 상담자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문항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는 응답자의 66.7%가 매우 좋음, 33.3%가 약간 좋음에 응답한 것을 살펴볼 때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문항 ‘이 프로그램이 다시 실시된다면 후배나 친구에게 권유하겠습니까?’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83.3 %가 적극적으로 권유, 16.7%가 가능한 권유에 응답한 것을 살펴봤을 때 참가자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에서 진로와 관련된 상담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피험자들로 하여금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RIASEC 유형 설명과 활동을 통해 내가 이런 적성에 맞고, 직업적 성격유형과 연결 시켜 볼 수 있어서 나에게 대해 깊게 알아 볼 수 있었던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내가 원하는 유형의 진로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꾸준한 준비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진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일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고 실수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에게 매우 많은 의존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통하여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 직업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하였었는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해 졌다.', '나 자신을 이해 할 수 있었고 여러 사람에 고민을 듣고 나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어 매우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진로에 대한 조바심이 적어졌다. 진로에 대한 구체적 준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같다.', '진로가 정해져 있었지만 나의 약간 다른 면?을 발견하여 다른 쪽으로도 한번 쬐... 고민하고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꾸게 해주었다.'고 반응하였다.

2) <프로그램 평가서 2>의 분석

◆ 패서닛 ◆

조금이나마 혼란스러운 나의 진로 고민을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성격에 맞는 직업유형을 찾아보니까 내가 정말 직업을 제한적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프로그램 전 과정 동안 해결방법까진 아니더라도 고민하는 범위가 작아졌으면 좋겠다. 매 회기 과정 동안 조금씩 진로에 대해서 명확해 지고 있어 진로결정을 하는데 수월할 수 있었고 특히, 진로가 표로 정리되어 있어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 졌다.

◆ 튜터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내 성격에 맞는 직업들을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직업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생각들만 하였던 나에게 반성을 해보고 암울하기만 한 내 꿈이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가지려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만큼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 방법에 의해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후회가 가장 적다는 것을 느꼈다.

◆ 글로벌플레이어 ◆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질감을 느끼며 진로 문제를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어느 분야,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 흐름만이라도 알고 갔으면 좋겠다. 내 꿈의 변천사를 통해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내 모습을 바라 볼 때 내 꿈에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 카메라맨 ◆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직업 유형에 가까운지 알고 싶고 성격이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 하게 되었다. 직업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과 적극적인 성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성숙된 나의 모습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복지사 쌤 ◆

내 적성에 맞게 스스로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 성격유형은 SS유형으로 정말 자신에 주장을 피력을 못 하고 주로 끌려 다니는 스타일인데, 성격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성격은 본인 노력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 적극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진로 결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고 합리적 유형을 조금 더 보완 해야겠다.

◆ Dr. Lee ◆

아직까지는 확실한 나의 성격과 그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여 답을 찾고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 대해서 알아야 나

에 가치가 높아 질 것이고 진로 결정을 하는데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가짐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피드백공유는 정말 색달랐고 내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파티플래너 ◆

느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한정된 직업에서도 마음이 가는 직업이어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진로코드별 분류표에 나와 있는 내 성격과 맞는 다양한 직업들을 봤을 때 ‘야호’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내 꿈의 변천사, 타임캡슐 등 모든 회기 동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진정 나의 꿈과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 좋았고 이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본다. 꼭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프로그램 종결시 질문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평가서와 프로그램 매 회기마다 종료된 후 피험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효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 둘째,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 셋째, 진로성숙도 향상, 넷째,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인 내용 평가를 살펴봤을 때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된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에 바탕을 둔 적성탐색검사와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성격, 좋아하는 활동, 가치, 유능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을 파악하고 직업의 탐색과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진로성숙도와 진로 의사결정이 낮은 대학생이 겪게 되는 진로문제를 도와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실제로 프로그램이 대학생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 가설 1의 ‘진로성숙도는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원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원에 비해 진로성숙도 전체척도($t=5.39, p<.05$) 및 하위요인 결정성($t=2.58, p<.05$), 관여성($t=3.58, p<.05$), 독립성($t=2.80, p<.05$), 타협성($t=3.63, p<.05$), 성향성($t=2.55, p<.05$)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가설이 긍정되었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일찍 진로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과 진로를 선택할 때 적극적인 준비 정도, 일이나 직업에 부여하는 정도 그리고 직업 중심적인 관점을 취하는가를 나타낸다. 연구의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프로그램이 자신의 가치관, 흥미, 능력, 유능감, 적성 등에 대한 이해와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부분은 현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성격적 유형과 직업적 성격 유형을 연결 시켜 한층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진로성숙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로는 김민순(2004)의 「홀랜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김남구(2007)의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둘째, 가설 2-1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Holland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하위요인 합리성만($t=2.38, p<0.5$)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가설 2-2의 ‘진로 의사결정 능력은 Holland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 결과,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원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원에 비해 진로 의사결정 능력($t=4.53, p<.05$)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가설이 긍정되었다.

진로 의사결정 능력은 선호하고 있는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능력, 현재 수준 상태에서 자신에 목표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은 물론 여러 사람들과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연구의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본 프로그램이 자신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실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과 선택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로는 김남구(2007)의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2005)의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진로 자기 효능감,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정체감, 진로 관련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에는 특히 개인의 성격적 유형과 직업적 유형을 바탕으로 한 개인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능력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 참여자가 지원자라는 점과 기존에 연구들과는 달리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대학교 1학년, 2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요구 수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연구 결과에 더욱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기 이해 부분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Holland 적성 탐색 검사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중 진로성숙도와 진로 의사결정 부분을 일부 도입하여 대상의 요구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식의 효과적인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의 선택 및 준비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진로의사결정능력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하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소수 대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결과를 같은 또래의 다른 대학교 학생들에게 모두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 활동들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편안하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는 참가자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을 학년별로 차별화하고 요구와 수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학에서는 진로 및 직업지도 차원에서 본 프로그램과 같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연우, 김이레, 장윤정(2006). 2006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11, 1-80.
- 강현량(2000). 진로지도를 위한 적성, 흥미, 교과 성적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대석(200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남희(1997). Holland의 진로 유형에 따른 진로 의사 결정 특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 김인규, 민경화(2000). 2000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남구(2007).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순(2004). 홀랜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이은경(1996). 이화여대 신입생의 특성변화: 1990학년도부터 1996학년도까지. **학생생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32(1), 32-52.
- 김성희(1998). 대학신입생 실태 변화 분석: 경북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지도연구: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1(1), 32-52.
- 김은산, 김경찬, 이시은(2000). 1999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3, 77-110.
- 김지영(2001).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향(2001). 진로집단상담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83).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태훈(2005).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진로자기 효능감, 진로결정 수

- 준, 진로정체감, 진로관련 자기평가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경란, 현영섭, 박소연, 이효남, 변정현(2007).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
- 류진혜(2007). 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한양상담센터.
- 박완성(2005). 진로탐색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18(2).
- 이경애(2003).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향상 및 진로장애요인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1994).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에 의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현림(2000). 진로상담의 이해. 경상 :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현림, 김봉환, 송채홍, 천성문(2000). 진로지도와 상담. 영남대학교 출판부.
- 윤효권(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유형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동환(2001). 진로지도 프로그램 적용이 학습된 무기력감을 지닌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채기(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2007). 진로의식조사 결과.
- 최연실, 장석진, 김희숙(2005). 서울 캠퍼스 재학생들의 진로태도에 관한 실태조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한국진로 교육학회(199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허정임(2001). 대학생을 위한 적성탐색검사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I. (1992).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Odessa, FL: Psychological A

ssessment Resources.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O'Hara. R. P. & Tiedeman, D. V.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Abstract>

The Effect of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to Future Direction Maturity and Future Decision Making of University Students

Kim, Jong Hak

Major in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 Bong

In this research, it applied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to university students at the stage of selecting their future, consider personal value, aptitude to understand their effect on future direction maturity and decision making. The research issues set in detail by these research purposes are as below.

The first research issue, what effect does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have on future direction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As a sub-hypothesis, there will b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to the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in future direction maturity and the control group which did not participate.

The second research issue, what effect does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program have on the future direction 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As a sub-hypothesis, there will b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to the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which did not participate for the decision making. Second, there will b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to the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which did not participate for the ability of future direction decision making. This research subjected freshmen and sophomores from J university located in Jeju island to prove above hypothesis and notified the 'the map of my heart to find my dream(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and selected 24 volunteer applicants. And the 12 were set as experimental group and others were control group. The program introduced Holland aptitude search test and personal understanding, work world understanding and partial decision making among activities of 2007 young people work direction program. Then it was directed and edited with some supplement by directing professor and experts, the final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was creat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 18.0K for Windows program. There was response evaluation according to questions after the whole process of program and reviews written for each session of program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analyze the effect of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in details.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as below.

First, the hypothesis 'there will b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to the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in future direction maturity'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of decision, relation, independence, tendency, negotiation for all and sub-area. Second, the hypothesis 'there will b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to the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which did not participate for the decision making' had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reasonability that was sub-factor in all and sub-area. Third, the hypothesis 'there will b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to the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which did not participate for the ability of future direction decision making' had significant difference. These research results can help correct recognition of future direction decision and relation, independence, negotiation and tendency. Also, the understanding on self and work world necessary for future decision can improve the reasonable future direction decision making ability. That means, the active application of Holland future group counselling program can have positive effect as reasonable future direction decision making in choosing the job, work aptitude and direction. Therefore, there is an individualized operation suitable for the level and request of subjects with differentiation for each grade. Most of all, the university shall expand effective and practical programs like the program in this research in the level of future direction and work direction and they shall be systematically, consistently operated.



부 록

| | |
|---------------------------------|----|
| [부록1]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 42 |
| [부록2] 진로성숙도검사 | 50 |
| [부록3]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능력 검사 | 53 |
| [부록4]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서 | 55 |
| [부록5] 소감문 | 56 |

부 록

< 부록 1 >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제 1 회 : 초기 만남

▶ 목표

- ◇ 참가자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수준을 높일 수 있다.
- ◇ 자신의 직업선호유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활동 내용

◇ 프로그램 목적과 의의소개

이 프로그램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적 유형과 직업적 유형을 찾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정보와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자신에 적성에 대해 명확해지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자신감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대학생이고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아닌 처음으로 직업을 갖고자 또는 진로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게 되면, 선택의 기회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최상의 방법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설명

-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회기당 2시간이 소유 되며 1회기에서 3회기까지는 자기 이해부분을 다룰 것이고 4회기에서는 직업에 이해를 통해 5회기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6회기는 진로의사결정을 한 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규칙(서약서 작성)

- 프로그램 진행 동안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원들 간에 의논 후 6가지를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프로그램 시간 약속 잘 지키기, 비밀유지, 경청하기 등)

◇ 집단구성원 소개 및 촉진적 관계형성

- 진로와 관련하여 별칭을 짓게 하고, 다 짓고 나면 기록하여 가슴에 명찰을 달게 한다.

-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게임을 통해 서로 섞어서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오른쪽 사람과 짝을 짓게 한다.

- 두 사람이 5분간 별칭 지은 이유, 학과, 학년, 진로 계획, 성격, 관심거리, 취미 등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가능한 상대방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아내도록 한다.

- 짝을 통하여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전체에게 짝을 소개한다.

◇ 참가동기와 개인목표 발표

- 우측으로 한명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개인목표를 발표한다.

◇ Holland 적성탐색검사(사전검사), 및 해석상담

- 사전에 검사하고 올 수 있도록 한다.

- 일관도, 분화도, 일치도 정체감 등에 대해서 해석해 준다.

◇ Holland의 RIASEC 유형의 이해

- S유형: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남을 잘 도와준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 R유형: 남성적이고 솔직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말이 적다. 그리고 고집이 있고 직선적이며 소박하고 단순하다.

- E유형: 통솔력, 지도력이 있으며, 말을 잘하고 경쟁적이고, 야심이 있다. 그리고 외향 적이고 낙관적이며 열성적이다.

- I유형: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며 지적 호기심이 많은데, 비판적,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 타며 신중하다.

- A유형: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하다.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한다.

- C유형: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조심성이 있으며 계획성이 있다. 그리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완고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 느낀점 나누기 및 마무리

제 2 회 : 자기 탐험 I

▶ 목표

- ◇ 자신에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 ◇ 자신이 평소 생각해 왔던 직업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비교 분석한다.
- ◇ Holland의 RIASEC 유형별 집단활동을 통해 유형을 이해한다.

▶ 활동 내용

- ◇ Holland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를 활용한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 Holland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코드에 맞는 직업 중 마음에 드는 직업 10개 이상 찾고 기록을 한다.
- ◇ 진로코드에 맞는 직업의 공통점 찾기
 - 본인이 평소에 생각해 온 직업 1개 이상을 기록하게 하고 Holland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를 활용하여 찾은 직업 10개중 5개 이상을 선별하여 기록하게 한다.
 - Holland 간편 진로코드 분류표를 활용하여 찾은 직업 5개 이상의 공통점과 평소에 생각해 온 직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게 하고 생각을 공유 한다.
- ◇ Holland의 RIASEC 유형별 집단 활동
 - RIASEC 별로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특징(성격특징, 강점, 약점, 학습태도, 친구 관계, 기타-타인이 나를 보는 나 등)에 관하여 적도록 하고 발표한다.
- ◇ 느낀점 나누기 및 마무리

제 3 회 : 자기 탐험II

▶ 목표

- ◇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 자신의 과거 진로 변화 과정을 회상해 봄으로써 참가자 스스로 자신의 진 변화에 대하여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 활동 내용

◇ ‘want-have list’ 작성

- 각 사분면에 대해서 3가지 이상씩 미리 적어 샘플로 보여주며 각 사분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작성 후 발표하게 한다.
- I 사분면 : 앞으로 지속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
- II 사분면 : 앞으로 개선 및 수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
- III 사분면 :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
- IV 사분면 :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획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들.

◇ 내 꿈의 변천사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에 이르기까지 꿈의 변천 과정 샘플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각자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꿈의 변천 과정을 작성하면서 꿈이 변하게 된 이후를 옆에 같이 기재 할 수 있도록 하고 꿈이 똑같은 경우에는 꿈을 가지게 된 동기와 꿈으로 계속 정한 이유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 벽에 발표한 것을 붙이도록 하고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도록 서로 포스트잇에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적도록 유도한다.

◇ 느낀점 나누기 및 마무리

제 4 회 : 직업 탐험

▶ 목표

- ◇ 직업의 개념과 가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 ◇ 직업인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는다.
- ◇ 취업성공사례담을 통해 성공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 활동 내용

◇ 직업이란 무엇인가? 토론

- 최근 조폭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면서 일부 청소년의 경우 조폭을 멋있게 생각하고 또 조폭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설명을 하고 과연 조폭이 직업이 될 수 있는지 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토론 하도록 유도 한다.
- 찬반으로 거수하도록 하고 대부분 반대하는 경우에는 가상으로 찬반으로 나누고 조별로 하여 토론 후 수렴나무에 정리하도록 한다.
- 수렴나무 작성 후 전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업의 개념 및 특성

- 직업은 생계유지와 함께 개인의 적성을 살리고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아실현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직업은 정신적, 육체적 소모에 따른 대가를 얻는다는 점도 설명을 한다.
- 직업의 특성1은 끊임없는 변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내용과 비서의 예전에 일과 현재의 일이 다른 점을 들면서 설명을 한다.
- 직업의 특성2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서 직업이다.
- 직업의 특성3은 꿈 실현의 도구이다.
- 직업의 특성은 윤리성이 있어야 한다.

◇ 취업성공담을 통한 성공요인 파악

-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인물에 대해서 동영상 및 PPT 보여줌.(예, 김규환 명장 등)

◇ 직업의 종류 탐색하고 찾아보기

- 직업의 종류와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KNOW, 커리어넷, 워크넷 등)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 느낀점 나누기 및 마무리

제 5 회 : 나를 표현하자

▶ 목표

- ◇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을 이해하고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 ◇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자신의 직업 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

▶ 활동 내용

◇ 우주 타입캡슐

- 한국과 외국을 대표하는 26명 이상의 각계 저명인사들을 미리 명단에 적고 참가자들에게 배부를 한다.
-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6명의 후보자를 선택하고, 6명의 후보자 이름을 포스트잇 6장에 각각 하나씩 적도록 한다.
- 팀 활동을 위해 4~5명의 소집단을 구성하고 각 소집단별로 토론을 통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그 결과를 전지에 적도록 하고 전지에는 큰 타입캡슐을 그리고 그 안에 참가자가 기 작성한 포스트잇 중 6장을 선택하여 부착하거나 이미지를 그려 넣도록 한다.
- 각 팀별로 5분씩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및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한다.

◇ 의사결정 유형 그 실체와 진실

- 의사결정 유형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지를 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 직관형, 의존형, 합리형의 순으로 참가자들이 거수해 보도록 하고, 진단결과에 대하여 유형별 장, 단점 중심으로 피드백을 한다.
-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자신의 경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실습

-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의사결정 대상확정→관련 정보 수집→복수의 대안 도출, 비교/분석→의사결정→평가/피드백)를 설명하고, '직업'이라는 의사결정 주제를 대입시켜 절차를 설명한다.
- 1차:도전직업, 추천직업, 소망직업을 설정한다.(도전직업:직업탐색 시간에 관심 있게 살펴본 직업, 추천직업:부모님 등 주위에서 추천하는 직업, 소망직업:영화, 드라마 등을 통하여 멋지다고 생각해본 직업)
- 2차는 판단 근거 설정하기(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 3차는 판단 근거별 가중치 정하기
- 4차는 대안별 합산하기
- 1차 의사결정안 도출하기와 같은 단계를 실습하고 실제로 작성해 보고 진로의사결정을 해 본다.

제 6 회 : 여미는장

▶ 목표

- ◇ 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진로 의사결정을 돕는다.
- ◇ 자신감을 얻는다.

▶ 활동 내용

◇ 나의 생활 실천 계획 짜기

-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계획, 1년 이내에 계획, 3년 이내에 계획, 5년 이내에 계획, 10년 이내에 계획, 평생 이루고 싶은 일을 작성하도록 한다.
- 어떤 직업이나 진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성 있는 진로계획을 이해시킨다.

◇ 피드백 공유

- 4인 1조로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마주보고 앉는다.
- 한사람은 주인공이 되어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 나머지 사람들은 한사람씩 주인공에 뒤에 서서 왼손을 왼쪽 어깨에 대고 오른손을 가운데 등에 손을 살포시 댄다. 그리고 주인공의 장점 5가지를 이야기한 후 주인공의 성장을 위해서 보완할 점 한 가지를 이야기 해 본다.
- 남은 두 사람 중 오른쪽 사람은 주인공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다른 한 사람은 주인공의 별칭이 적힌 워크시트에 피드백 내용을 적는다.

◇ 과정 정리

-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을 나눈다.

<검사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 검사는 좋고 나쁜 답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비추어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 사용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0.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중학 드림

<부록 2> 진로성숙도검사

이 검사는 일에 대한 태도의 관점에서 교육 또는 상담을 위하여 만들어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의 각 항목을 읽어가면서, 이 글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똑같거나, 거의 같으면 ○에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전혀 다르거나, 조금 다르다면 ⊗에 ✓하기 바랍니다.

| | | |
|--|---|---|
| 1. 나는 가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에 관해서 공상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있지 않다. | ○ | ⊗ |
| 2. 내가 택한 직업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 ○ | ⊗ |
| 3. 직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내가 도대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 ○ | ⊗ |
| 4. 어느 직업이든 성공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 ○ | ⊗ |
| 5. 직업을 선택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 ○ | ⊗ |
| 6. 수입만 많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 ○ | ⊗ |
| 7. 나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 ○ | ⊗ |
| 8.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 ○ | ⊗ |
| 9. 자신의 직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 ○ | ⊗ |
| 10.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 ○ | ⊗ |
| 11. 일이 가치 있다고 보는 주된 이유는 일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 | ⊗ |
| 12. 나는 취업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취업여건이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소질, 능력, 자격 등을 뜻한다.) | ○ | ⊗ |
| 13. 직업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 ○ | ⊗ |
| 14.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관해서 의문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나 친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 ○ | ⊗ |
| 15. 나는 종종 현재의 나의 모습과 직업을 가짐으로써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16.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 ○ | ⊗ |
| 17.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 ○ | ⊗ |
| 18.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해보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일을 고르는 것이다. | ○ | ⊗ |
| 19.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결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 ○ | ⊗ |
| 20.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매우 비슷하다. | ○ | ⊗ |
| 21.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은 단 하나 뿐이다. | ○ | ⊗ |
| 22.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 | ⊗ |
| 23.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 (위대한 발견을 한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 ○ | ⊗ |

| | | |
|---|---|---|
| 24.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한다. | ◎ | ⊗ |
| 25.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택해서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 ◎ | ⊗ |
| 26. 직업의 큰 매력은 출세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 ◎ | ⊗ |
| 27. 나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관하여 어떻게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 | ⊗ |
| 28.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바라는 때가 많다. | ◎ | ⊗ |
| 29. 일이란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이다. | ◎ | ⊗ |
| 30. 때때로 자신이 처음에 선택한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 | ◎ | ⊗ |
| 31. 내가 원하는 직업은 자주 바뀐다. | ◎ | ⊗ |
| 32. 직업은 일단 한 번 선택하고 나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 ◎ | ⊗ |
| 33. 직업 선택의 문제는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다. | ◎ | ⊗ |
| 34.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 ◎ | ⊗ |
| 35.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자신이 바라는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다. | ◎ | ⊗ |
| 36. 대개 우연히 직업을 가진다. | ◎ | ⊗ |
| 37. 직업 선택에 있어서 부모님의 충고에 따른다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 ◎ | ⊗ |
| 38.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일에 흥미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보다 중요하다. | ◎ | ⊗ |
| 39. 직업 선택은 본인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 | ⊗ |
| 40. 나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직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 ◎ | ⊗ |
| 41.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장래의 직업에 관해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한다. | ◎ | ⊗ |
| 42. 일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 ◎ | ⊗ |
| 43. 나는 현재의 나의 모습과 장래 직장인으로서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 ◎ | ⊗ |
| 44. 나는 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싶다. | ◎ | ⊗ |
| 45. 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택하느니 차라리 직업을 갖지 않겠다. | ◎ | ⊗ |
| 46. 나는 노는 것보다 일을하기를 원한다. | ◎ | ⊗ |
| 47. 모든 사람이 조만간 직업을 가져야 하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 ◎ | ⊗ |
| 48.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 | ⊗ |
| 49. 직장 생활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보다도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 ◎ | ⊗ |
| 50. 직업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 ◎ | ⊗ |
| 51. 직업이란 어차피 나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권하는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결정해뒀야 소용없다. | ◎ | ⊗ |
| 52.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 ◎ | ⊗ |

| | | |
|---|---|---|
| 53.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는 좀 못한 직업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 ◎ | ⊗ |
| 54.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선택해야 할 직업을 권해 준다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다. | ◎ | ⊗ |
| 55. 나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 ◎ | ⊗ |
| 56. 나는 장래의 직업 문제에 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 ◎ | ⊗ |
| 57. 내가 매력을 느낄만한 직업을 정말로 발견할 수 없다. | ◎ | ⊗ |
| 58.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 ◎ | ⊗ |
| 59.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자기가 무엇을 잘 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
| 60.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 ◎ | ⊗ |
| 61. 나의 직업 계획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 ◎ | ⊗ |
| 62.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 ◎ | ⊗ |
| 63. 나는 좋아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 ◎ | ⊗ |
| 64. 앞으로 내가 유명해 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 ◎ | ⊗ |
| 65.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 ◎ | ⊗ |
| 66.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다. | ◎ | ⊗ |
| 67. 부모님은 대개 어떤 직업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고 있다. | ◎ | ⊗ |
| 68. 먼저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계획해야 한다. | ◎ | ⊗ |
| 69.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70. 나는 나 자신이나 직업 세계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업선택 문제는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 ◎ | ⊗ |
| 71. 공부를 할 때 나는 처음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어떨까하는 공상을 자주하곤 한다. | ◎ | ⊗ |
| 72.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 ◎ | ⊗ |
| 73. 직업에 대한 나의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 74. 일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일을 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다. | ◎ | ⊗ |
| 75. 내가 가장 원하는 직업을 가질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 ◎ | ⊗ |

<부록 3> 진로 의사결정 유형 및 능력 검사

이 검사는 여러분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 가면서 그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똑같거나 거의 같으면 ㉠에 그리고 자신의 입장과 매우 다르거나 상당히 다르면 ㉡에 ✓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 | | |
|--|---|---|
|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매우 체계적으로 한다. | ㉠ | ㉡ |
| 2.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군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 ㉠ | ㉡ |
| 3. 나는 내 자신의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서 매우 독창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 ㉠ | ㉡ |
| 4. 나는 대체로 미래보다는 현재의 내 입장에 맞추어서 일을 결정한다. | ㉠ | ㉡ |
| 5. 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결정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 ㉠ | ㉡ |
| 6. 나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곧잘 올바른 결정을 한다. | ㉠ | ㉡ |
| 7.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나중에 미칠 결과까지도 고려한다. | ㉠ | ㉡ |
| 8.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친구의 생각을 중요시한다. | ㉠ | ㉡ |
| 9. 나는 남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가 정말 힘들다. | ㉠ | ㉡ |
| 10. 나는 중요한 결정이라도 매우 빠르게 결정한다. | ㉠ | ㉡ |
| 11.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따른다. | ㉠ | ㉡ |
| 12. 나는 내가 좋아서 결정하기보다는 남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 ㉠ | ㉡ |
| 13. 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한다. | ㉠ | ㉡ |
| 14. 나는 어떤 일을 점검해 보거나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 ㉠ | ㉡ |
| 15. 나는 친한 친구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이든 좀처럼 결정하지 않는다. | ㉠ | ㉡ |
| 16. 나는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그것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 ㉠ | ㉡ |
| 17.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우며 실천할 일들을 골똘히 생각한다. | ㉠ | ㉡ |
| 18. 나는 결정에 앞서 모든 정보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재검토 한다. | ㉠ | ㉡ |
| 19.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는다. 즉,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 ㉠ | ㉡ |
| 20. 나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미리 주의 깊은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 ㉠ | ㉡ |
| 2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만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 | ㉡ |
| 22.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한 후에 대개 그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를 상상해 본다. | ㉠ | ㉡ |
| 23. 나는 평판이 좋을 것 같지 않은 결정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24. 나는 내가 내리는 결정에 굳이 합리적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25. 나는 참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않는다. | ◎ | ⊗ |
| 26. 나는 어떤 결정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우면 나는 결정이 옳은 것으로 여긴다. | ◎ | ⊗ |
| 27. 나는 훌륭한 결정을 내릴 자신이 없어서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 | ◎ | ⊗ |
| 28.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하나하나가 최종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고 곧잘 생각한다. | ◎ | ⊗ |
| 29. 친구가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나의 결정에 그다지 자신을 갖지 못한다. | ◎ | ⊗ |
| 30. 나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싶다. | ◎ | ⊗ |
| 31.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 | |
| 32. 나는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 | |
| 33.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 | |
| 34. 나는 내가 내리는 진로결정이 옳다고 확실할 수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 | |
| 35. 나는 내가 선택한 진로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 | |

<부록 5> 소감문

◆ 패서닛 ◆

| 회 기 | 내 용 |
|-----|---|
| 1 | Holland 적성탐색검사 결과 중 I와 E는 반대성향인데 둘 다 높게 나와서 지금의 내 혼란을 반영한 것 같았다. 지금은 뚜렷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나의 온전한 성향 외에 부모님의 영향이나 주의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혼란스러운 나의 진로 고민을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2 | 나의 진로코드는 ES이다. 주코드와 보조코드 차이가 10점미만 이어서 SE의 직업군도 살펴보았다. SE에서는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중등교사, 대학교수, 언어학원강사(영어)가 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건 2위인 것처럼 하면 막상 잘 해낼 것을 알지만 만족감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회사의 기획자, 관리자, 지도사 이런 것들이 ES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직업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좀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확실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 이것을 다시 안것만 해도 말이다. |
| 3 | 다행이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버리고 싶은 것이 한 개 밖에 없어서 기분이 좋았다. 원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적기도 하지만 막상 발표하기 위해 적으려니 역시나 힘들었다. |
| 4 | 취업성공담!! 무에서 시작해... 자살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힘든 생활에서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해서 명장까지 간 사람의 스토리가 대단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또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가 성공에 있어서 그런지 만약 행복한, 즐기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또 다른 인생이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정립도 잘해야겠다고 생각된다. |
| 5 | 마음이 뭔가 풀리는 느낌이다!! 해결방법까진 아니더라도 고민하는 범위가 작아져서 그리고 표로 정리되어서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편인데 가중치를 두는 것은 해보지 않았다.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
| 6 |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의 중요성을 느꼈다. 일회성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가치관, 흥미, 적성, 취업률과 전망, 부모님의 기대들에 대한 항목 작성과 가중치 부여를 해서 또 해보고 싶다. |

◆ 튜터 ◆

| 회 기 | 내 용 |
|-----|---|
| 1 | <p>여러 사람들이 진로에 대한 생각을 들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된거 같다.</p> <p>이번 계기로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해 알고 싶다.</p> <p>내가 혼란한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시간이였다.</p> |
| 2 | <p>내 성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였다.</p> <p>프로그램 시간에 멘토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여서 귀에 쪽쪽 쉽게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p> |
| 3 | <p>want-have list 가 내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내가 필요한게 무엇인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버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였다.</p> <p>현재 내 꿈 상태는 좀 암울하다. ㅠㅠ</p> <p>그래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가지려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p> |
| 4 | <p>직업이란 무엇일까?</p> <p>직업에 대해서 개념이 아주 막연했다. 그래서 고민도 많았던거 같다.</p> <p>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내 고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였다.</p> <p>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게 아닐까?하는 반성을 해본다.</p> |
| 5 | <p>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이 혼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혼, 직업 선택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결정과정은 1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수정 보완 하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함을 느꼈다. 그 동안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일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해결하고 했었는데 너무 안일하였던 것 같다.</p> |
| 6 | <p>생활실천계획표?</p> <p>솔직히, 처음 써본 건 아니지만 항상 구체적으로 적지는 못했었다.</p> <p>일단은 내 꿈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실천계획표를 쓰는 것에 대해 유익하였고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p> <p>나는 그동안 자존감이 좀 낮았는데, 이번 프로그램 시간에 사람들이 장점을 말해줘서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좀 높아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p> |

◆ 글로벌플레이어 ◆

| 회 기 | 내 용 |
|-----|--|
| 1 | 참가동기나 개인목표를 들으면서 나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다. 그리고 오늘 개인목표를 꼭 이루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
| 2 | 내 적성 유형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유형에 해당하는 다양한 직업을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집단 활동을 하면서는 S, E, A의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이런 부분을 닮고 싶다고 많이 느꼈다. |
| 3 | 나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어떤 삶을 바라는지 알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삶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겠다고 느꼈다. 짧은 시간동안 22년동안의 내 꿈이 무엇인지 다신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 |
| 4 | 직업은 단순히 생계유지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흥미를 느끼고 적성을 갖고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슨일을 하든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해 본다. |
| 5 |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치우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관적 의사결정 역시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놀랐다. |
| 6 | 어느 년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을 때 좀 막막했다. 잘 적어내려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공란이 많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재밌었다. 역시 프로그램 참가하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소수인원 임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모일 수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는 제 꿈을 찾는데 많이 뚜렷해진 것 같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 카메라멘 ◆

| 회 기 | 내 용 |
|-----|---|
| 1 | <p>제가 이 곳에 참가하게 된 것은 직업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제자신이 어떤 직업의 유형에 가까운지 알고 싶고 성격이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다.</p> <p>처음에 진로별칭 짓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원래는 별명이 오대방인데 딱히 별명이 생각나지 않고 제가 직업이 정해진것도 아니여서 그래서 내가 사진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멘이라고 지었다.</p> <p>목표는 내 자신의 진로를 알아보고 타인과 성격도 비교해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나의 장점은 개선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게 목표다.</p> |
| 2 | <p>내가 선택한 직업의 공통점을 알아본 결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변화를 중시하지 않으며 실내에서 앉아서 글쓰는 문서작업을 요하는 직업이다. 때에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직업인 것 같다.</p> <p>유형별로 성격을 알아봤는데 평상시의 내 성격과 같았다. 솔직히 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 하는 내성적인 성격이 많지 않은 친구들과의 인관관계와 직업을 가지는데 있어서도 좋지만은 않다고 나 역시도 생각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고 싶다. 노력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성숙되고 자신감까지 얻고 싶다.</p> |
| 3 | <p>내가 원하는 삶은 돈을 많이 가지거나 명품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직업을 갖고 내 자신이 만족하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성적인 성격, 말더듬는 것 등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내 성격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내가 원하는 삶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현재까지 꿈이 변했는데 꿈이 변한 것은 과정일 뿐이고 현재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
| 4 | <p>조폭도 직업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 토론을 했는데 직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층구조가 있고 지위에 따라 돈을 분배하고 조직이 잘 되고 폭력을 행사해서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한 조폭도 직업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적이어야 하며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이처럼 직업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에 놀랐다.</p> <p>좀 더 적극적이고 나와 그리고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와 정의가 필요함을 느꼈다.</p> |

| | |
|---|--|
| 5 | <p>나는 의사결정 유형 적성검사를 해본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수치가 높았다.</p> <p>평소에도 합리적, 직관적으로 섞어가며 의사결정하고 레포트를 하거나 시험 볼 때는 의존형으로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 이고 거의 옷 살 때 물건 살 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어쩌면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나온게 맞을지도 모른다.</p> <p>또한 유명 인물을 정할때도 같은 100명의 인물을 줘도 사람마다 고르는 인물이 다르게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다르게 아닌가 생각한다.</p> |
| 6 | <p>6개월이내부터~10년후 까지 실천계획을 짜는데 쉽지 않았다.</p> <p>실현 가능한 계획,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그 후 결과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p> <p>그 전에는 주된 목표가 졸업학점을 채워서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삶이 목표를 위해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 행복한 삶을 계획하겠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절대 포기 안하겠다.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에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다.</p> |

◆ 복지사 샘 ◆

| 회 기 | 내 용 |
|-----|---|
| 1 | <p>RIASEC 유형을 보면서 나의 유형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쉽게 그림으로 RIASEC 유형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p> <p>그리고 이 유형을 통해 나의 진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직업을 코드 별로 분류하여 찾아보니 많은 직업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내 적성에 맞게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p> |
| 2 | <p>Holland 진로검사에서 SS유형이 나와서 좀 놀란점도 있었다. 내가 사람 관계를 좋아하는 것은 알았지만 내가 SS가 너무 강해서 이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그래서 내가 다른 코드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p> |
| 3 | <p>want-have list 작성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p> <p>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노력해야 할 것도 또, 내가 갖고 싶어야 할 부분을 작성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야 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며 하나씩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p> <p>내 꿈의 변천사를 쓰면서 내가 어렸을 때 꿈은 이러한 이유로 포기하다는 것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을 때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p> |
| 4 | <p>직업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알고 ‘조폭이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찬성, 반대입장을 갖고 토론해 보았는데 각각 사람마다 다른 입장들이 있었지만 정말 열정적인 토론시간을 갖게 되었다.</p> <p>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이 생계, 흥미, 적성 등이 있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윤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조폭이 직업이 될 수 없는 것이 윤리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 될 수 없는 것이다.</p> <p>취업성공담을 통한 성공요인에 동영상 보면서 나에게 대해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와 많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다.</p> |

| | |
|---|--|
| 5 | <p>나는 S유형이고 나와 같이 활동(토론)한 친구는 C형인데 우주타임캡슐을 하면서 각 유형에 따라서 각자 생각하는 가치가 다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정리하여 토론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각 사람들의 유형에 맞게 정리한 것을 보고 신기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도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p> <p>그리고 의사결정유형에서 내가 직관형, 의존형, 합리적 유형이 나왔는데 나는 의존형의 점수가 높아서 중요한 결정에서는 좀 더 내가 합리적인 유형을 많이 보완해야겠다.</p> |
| 6 | <p>나의 생활실천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짜보는 계기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 그동안 나는 무엇이 되어겠다는 생각만 했었지만 각 년도별로 회기로 해서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나를 다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p> <p>그리고 활동하는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 좋았다.</p> <p>다른 사람들이 나의 장점을 말해주었을 때 이 뿌듯하고 기분 좋은 느낌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p> |

◆ Dr. Lee ◆

| 회 기 | 내 용 |
|-----|--|
| 1 | <p>아직까지는 확실한 나의 성격과 그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단 하나의 검사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 1회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모든 회기를 끝내고 나서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p> |
| 2 | <p>각 유형에 관해 들어봤을 때 나는 여러 유형에 있는 몇가지 것들에 다 해당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맞는 직업 중에서도 내가 관심이 가는 직업이 있기는 했다. 그 동안 나에게 맞는 직업은 하나. 아니 적어도 두 세개는 있다고 막연하게만 생각을 해 왔었다. 그러나 멘토님께서 유형에 대해서 설명 했을 때는 나의 적성이라든가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느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더 즐겁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군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p> |
| 3 | <p>그냥 평소에 생각해오고, 지금까지 변해왔던 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p> |
| 4 | <p>직업인의 삶을 이해하는 part에서 명장의 영상을 보고 무슨 일이든 이루고자 할 때는 노력과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란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 나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p> |
| 5 | <p>내가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좀 놀랐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합리적인 선택이 좋지만, 일상 생활에서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인 부분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결정을 해야겠다.</p> |
| 6 | <p>실천 계획표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피드백 공유”하는 경험은 색달랐다. 내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회가 된 것 같다.</p> |

◆ 파티플래너 ◆

| 회 기 | 내 용 |
|-----|--|
| 1 | <p>별칭을 정하면서 나의 대표적인 직업을 정하고 나에게 대한 물음에 나를 구체화시키고 정할 수 있어서 좋았다.</p> <p>선생님이 Holland 유형설명을 잘해주셔서 나에게 대한 이해와 함께 사람들이 유형에 따라 성격유형과 잘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 세삼 신기했다.</p> |
| 2 | <p>진로코드별 분류표를 보면서 내코드 AS와 SA유형의 직업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만날때마다 “야호”라고 소리지르고 싶었다.</p> <p>그리고 A유형 꾸미기 할 때, 아름다움의 미, 감상의 자세, 그야말로 나를 느끼는 시간이었다.</p> <p>그리고 때론 다양성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다.</p> |
| 3 | <p>내가 하고싶은 것은 많은데 중요한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중요도 차이도, 시간이 걸리고 안걸릴 뿐이지, 이것도 소중한 내 목표이자 내가 하고 싶은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p> <p>내 꿈의 변천사에서는 참으로 많은 꿈을 만날 수 있었다.</p> <p>그냥 꿈이었던 것과 꿈다운 꿈까지 그리고 나의 미래의 씨앗까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꿈이 내게 오면 그 꿈을 붙는 연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p> <p>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p> <p>뭉든 열심히 배우고 내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다.</p> |
| 4 | <p>조폭이 직업이다라는 편으로 토론에 임해야 할 땐 정말 곤욕스러웠다. 상대방의 논리는 좋았다. 어쨌든 초등학교 어린이에게까지도 사회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조폭은 직업이 될 수 없는 건 분명하다.</p> <p>명장 영상은 완전 최고였다!!</p> <p>나도 제부터 열심히 기초부터 내게 좋은 것이 올 수 있도록 바닥과 기술을 갖고 닦아야 겠다.</p> <p>죽을 각오로 열심히 임해라.</p> <p>그리고, 삶의 간절함으로 다가서라.</p> <p>선불리 말고, 단단함과 뜨거움으로 말이다.</p> <p>나도 우리모두도 화이팅!!!!</p> |

| | |
|---|---|
| 5 | <p>타임캡슐에 데려갈 사람은 정하는 것에도조차 내 가치관이 개입되었다는게 신기했다. 내가 또한 강수진과 소프라노 그들의 맘과 아름다운은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p> <p>나의 직업(하고싶은) 등 3가지 직업을 비교항목을 두어, 비교해 보았는데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미래에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정말 원하는 것과 직업에 관련된 나의 가치(중심가치)들을 살펴보는 것도 내 미래직업을 위해 도움이 되었다.</p> |
| 6 | <p>세부 생활실천계획을 세우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내 맘대로 상상해서 적어보니 나의 소망과 이루고 싶은 꿈이 한눈에 보여서 좋았고 이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소망해 보았다.</p> <p>나의 꿈과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 좋았고 이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 까 생각해본다. 꼭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p> <p>Thank you Thank you~~</p> <p>함께 프로그램 받은 친구들이나 강사님</p> <p>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창시하신 분에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원하기만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p> <p>화이팅!!!</p> |